

## 굿모닝 신한증권 직지사 템플스테이

“지난 5월에 실시했던 1차 직지사 템플스테이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98점 나왔거든요. 사내에 직지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해보라는 입소문이 짝악 퍼졌습시다.”

회사 연수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굿모닝 신한증권 인사부 최진호 과장은 가톨릭 신자이지만 이번 2차 템플스테이에는 참가자로 한 몫 끼었다.

굿모닝 신한증권 전국지점 영업사원 31명을 대상으로 직지사에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 만덕전에서 진행된 2차 템플스테이의 참가자를 직위는 주임부터 부장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직지사 들어오는 순간 밖에서 가지고 온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다. 대신 황토색의 우리 옷 수련복과 하얀 고무신이 주어졌다. 영업사원들에게 꼭 필요한 수첩과 휴대폰, 그리고 담배도 모두 압수다.



굿모닝 신한증권 전국지점 영업사원 31명은 9월 16~18일 김천 직지사서 템플스테이를 경험했다. 사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신한증권 사원들.

비움으로써 행복함을 알았다.

### # 첫날-짜증... 짜증... 헛구역질

16일 오후 3시 입재식을 시작으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사찰에서의 기본예절과 발우공양 예법을 익혔다. 첫날은 산사에서 처음 맞는 저녁 발우공양. 마지막 김치 한 조각으로 그릇을 씻어 그들을 깨끗이 마셔야 한다.

“설거지물을 마시라고?”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여기저기서 헛구역질까지 한다. 이제 겨우 시작인데 3일간 지낼 일이 난감한 눈치다.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 죽겠습시다. 회사 연수프로그램이 어쩔 수 없이 참가했는데, 3일이나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답답합니다. 게다가 담배까지 뺏겼어요.” 김진성(30·전주) 대리의 인상이 그다지 편치 않다.

“회사에서 나눠준 연수 계획서엔 ‘자기고찰’이라고만 써 있었다고요. 3일간 산에서 노는 줄 알았는데 정말 짜증나네요.” 육근수(40·구미)차장은 절에 몇 번씩 가본 불자라고 한다. 그렇지만 불교 용어에 어렵고, 교육은 더욱 싫다고 했다.

### # 다음날 오전-치증 편안해진다

둘째날인 17일 새벽3시 도량을 도는 스님의 묵탁소리가 산사의 새벽을 밝혔다. 하룻밤 사이 참가자들은 산사 생활에 제법 익숙해진 모습이다. 잠이 덜 깨 몽롱한 듯 고개를 푹고 있는 모습도 보이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새벽예불에 참석했다. 예불이 끝나고 만덕전에서 참선에 대한 이론 강의와 실습이 있었다.

교무국장 무심 스님은 비움으로써 오는 행복,

자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오는 행복에 대해 법문했다. 템플스테이 사무과장 정관 스님은 “차가 바퀴를 달고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멈추는 것”이라며 “바쁜 생활을 멈추고 균형을 찾는 것”을 강조했다.

이번 참가자 31명은 경쟁사회에서 목표를 세워두고 성취하며 인정받으려 애쓰며 살아온 직장인들이 대부분. 손전호(56·여의도) 부장은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발전하겠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스님의 말이 잘 이해되는 않지만 끊임없이 채우며 살아온 이들에게 비우라는 스님의 법문이 새로운 화두가 됐다.

아침 도량 율력 시간. 만덕전 양쪽으로 나 있는 도량마당을 쓸며 내려갔다. 사실 새벽예불시간과 참선이론 시간은 아픈 병아리마냥 꼬박 꼬박 즐기는데 도량마당을 쓰는 동안 어느새 온몸에 힘과 활력이 샘솟았다.

“우와! 새벽공기 정말 상쾌하죠?”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전현진(31·수내역지점) 대리는 나뭇잎 나무 밑에 깔아주면서 말했다.

“매일 컴퓨터 모니터 3대 켜놓고 보다가 이곳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휴대폰도 없잖아요. 오늘은 집 생각도 아예 안 나네요.”

전 대리의 감탄은 고무신 예찬으로 이어진다. “참! 고무신이 이렇게 편한지 처음 알았어요. 발이 바다에 떠 있는 느낌이예요.”

도량 율력이 끝나고 샘터에서 마시는 물맛은 꿀맛.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는데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다.

### # 느낌이 왔다... '그래! 이런 거였구나'

같은 날 오후, 무심 스님으로부터 금강태극권을 배우고 108배를 했다.

정관 스님은 비불자들의 거부감이 없도록 108배의 뜻과 의미를 상세히 설명했다. “절을 하는 것은 겸손과 하심을 의미하며, 회사나 가족과의 생활에서도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스님의 이런 설명에도 열외로 빠진 한명의 사

로지오. 고무신이 바위에 척 달라붙으면 발만 속 빠져나오지요. 하하하.” 막막했던 첫날과는 달리 이제 모두의 얼굴에 편안함과 미소가 가득하다.

힘들어하던 김진성 대리로 적응하지 못했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어느새 분위기를 리드하고 있었다. “나만 빼고는 전부 ‘바쁜생활 맨’ 인가 봐요. 밤에 술 마실 사람도 없고, 나만 어젯밤 배회하고 다녔다니요. 집에서 화투 두 모, 포커 두 모도 몰래 쟁겨왔는데...”

박 주임은 “아이들과 함께 해외로 어디로 밖으로만 다녔는데, 이제 아이들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줘야겠다”고 덧붙였다.

템플스테이 시작때는 짜증스러워 했던 육근수 차장은 “절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바꿀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스님들이 풀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 할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담배 생각이 안 나는 게 참 좋습시다.”

조상철(42·부산 금정) 대리는 “당연한 존재로 여겼던 주위의 고객과 직원들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일어났다”고 털어놓았다.

직지사=배지선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 굿모닝, 굿 템플스테이



원이 눈에 띄었다. 김진성(30·전주) 대리. 기록 교인이다. 새벽예불시간에도 절을 하지 않은 채 뒤에 서 있었다. 김 대리는 “종교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다”며 미안해했다.

저녁 다도시간, 모든 참가자들이 황홀경에 빠졌다. 직지사 다도회 향경다케원 회원들과 강사 지혜심 보살이 정성껏 마련한 자리였다. 오롱차와 보이차, 녹차, 오미자차, 솔저를 분위기에 맞게 사방으로 차려 놓고, 손수 만든 다식과 떡을 나뉘어 받침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으니 그 맛과 맛이 하늘을 찔렀다. 돌아가며 차 맛을 음미하고 무심·정관 스님과 뜻다한 대답도 나왔다.

“비가 올 때 고무신 신어봤어요? 신 따로 발 파

“화투 2모, 포커 2벌!!!” 김 대리의 말에 모두 폭소를 터뜨리며 데굴데굴 굴렀다.

박경신(40·정자동) 주임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팍팍하게 살아온 자신을 돌아볼 좋은 기회였음”을 인정했다. 또 음식의 귀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설거지물까지 마실 정도인데, 어떻게 합부로 하겠어요.”

박 주임은 “2박3일간 여자 사원들끼리도 일체 수다를 떨지 않았다”며 신기해 했다. 묵언하라는 지침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줄면서 자연히 자신과의 대화시간이 늘었고, 그러면서 어느새 자신을 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됐다.

### 템플스테이, 기업들 연수로 각광

굿모닝 신한증권 사원들의 템플스테이는 기업이 직원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으로 템플스테이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불교문화 체험으로 활용돼 오던 템플스테이가 최근 삼성SDI, 현대자동차 등 국내 우수기업들의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8.9.10월 세 차례 직지사 템플스테이 연수를 진행한데 이어, LG투자신탁, 프리마호텔, 엔코 코리아 등도 내소사, 구룡사, 마곡사 등에서 하반기 기업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 730-0705

10월 20일 출발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순례)

₩ 650,000원 (중국비까지, 가이드 기사팀 불포함) 10월 10일 마감

일자	주요 일정
20일	09:35 항공편으로 인천출발 / 북경도착 북경 최대 사찰 담자사 순례 야간 열차로 낙양으로 이동
21일	소림사, 탐림, 백마사, 용문석굴 순례
22일	항공편으로 북경 이동 천안문, 자금성 및 왕부정 거리 관광
23일	만리장성 관광, 용화궁(라마교사원), 와불사
24일	천진으로 이동 진천페리 승선 / 출발
25일	인천 도착 해산

오와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대구 익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와불사, 담자사, 용문석굴) ₩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520,000원
3. 천진, 북경, 오대산 7일 (운강석굴, 와암사, 연통사) ₩ 620,000원

•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팀 불포함

### 중국 불교 성지 순례

1. 관음도량 보타 낙가산 5일 ..... 85만원
2.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 85만원
3.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5일 ..... 85만원
4. 문수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5일 ..... 80만원
5.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일 ..... 80만원
6. 달라이라마 티벳 8일 ..... 179만원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시는 중국과 제주도를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과 제주도 여행은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